

# 와~ KIA, 팀 타율·홈런·타점 리그 1위... 악! 실책 1위

외인 투수 활약 속 투·타 밸런스를 시즌 36경기 팀 타율 0.299 42홈런·207타점 '화력' 속 '실책 줄이기' 1위 수성 관전



실책 1위 KIA 타이거즈 그래도 믿는다. KIA는 올 시즌 투·타의 밸런스로 1위 질주를 하고 있다. 제임스 네일, 윌 크로우새 외인 투수들이 앞선 2년간 계속된 '외인

투수' 고민을 해결해 줬고, 마무리 정해영이 버티고 있는 필승조도 든든하다.

여기에 뜨거운 화력도 눈에 띈다. KIA는 9일 경기 전까지 올 시즌 36경기에서 0.299의 타율을 찍으면서 팀 타율 1위에 랭크됐다. 42홈런, 207타점으로 이 부문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KIA의 이름이 있다. 득점권 타율(0.316), 대타타율(0.386), OPS(0.834), 하위타선OPS(0.840), 2루타(72개), 장타율(0.459), 출루율(0.375) 1위 자리도 KIA의 차지다.

주포인 나성범이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고도 만들어낸 놀라운 화력이다.

하지만 또 하나 KIA 야수들이 만든 1위 기록이 있다. 바로 실책 1위다.

KIA는 36경기에서 42개의 실책을 쏟아내면서 2위 SSG(36개)에 앞서 가장 많은 실책을 기록했다. 지난 시즌 102개의 실책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수치다.

4시간 32분의 연장 혈투가 펼쳐졌던 8일 삼성전에서 실책이 쏟아졌다.

KIA 양현종과 삼성 원태인이 맞붙었던 이날 팽팽한 흐름이 깨진 순간에 실책이 있었다.

0-0으로 맞선 6회말 KIA 선발 양현종이 1사에서 김지찬에게 우측 2루타를 맞으면서 득점권에 주자가 나갔다. 이어 류지혁의 땅볼이 나오면서 2사 3루가 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1루수 이우성이 맞고 공이 흘렀다. 이우성이 급히 공을 잡아 1루로 송구했지만, 베이스 커버에 들어온 양현종의 글러브를 벗어났다. 실책이 나온 사이 김지찬은 3루를 돌아 홈에 들어오면서 '0의 균형'을 깼다.

7회에는 장현석이 이재현에게 솔로포를 맞으면서 0-2. KIA는 8회초 타진 최형우의 솔로포로 추격을 한 뒤 9회 박찬호의 희생플라이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면서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이후 연장 12회까지 가는 승부 끝에 4-2 역전승은 거뒀지만, 돌아보면 아쉬운 실책이 됐다.

실책이 이어지면서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지만 '공격'에 방점을 둔 KIA의 어쩔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하다.

올 시즌 KIA의 주요 전술 중에 하나가 이우성의 1루 배치다. KIA는 공격 극대화를 위해 외야수 이우성에게 1루까지 맡겼다. 1루 경험이 많은 황대인이 시범경기 맹활약으로 고민을 덜어주는 것 같았지만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이우성의 1루 비중은 커졌다. 상황에 따라서는 서건창이 1루에 투입되기도



뜨거운 화력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KIA는 공격에 무게를 둔 전력 구성 탓에 실책 부문에서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집중력 있는 수비가 KIA 1위 수성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하는 등 KIA는 공격에 무게를 두고 1루에 승부수를 던졌다.

이우성의 올 시즌 실책은 3개. 하지만 이제 막 1루수에 적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큼 1루에서 나오는 송구 실책도 많다. 전문 1루수가 아닌 만큼 아직은 완벽하게 모든 송구를 소화하지 못하면서 내야에 전체적으로 실책이 늘었다.

나성범의 헬스트링 부상 여파로 외야도 구상했던 완벽한 수비들이 갖춰진 것은 아니다. '최고참' 최형우가 나성범의 복귀에 맞춰 좌익수로 나서기도 하는 등 KIA의 수비는 공격에 비하면 부족하다.

공격으로 수비를 만회하고 있는 시즌 초반, 기대와 우려는 공존한다. 적응의 시간이 지난 뒤 시즌 마지막에는 평균에 수렴할 것이라는 기대, 실수로 인한 패배가 쌓일 경우 마운드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

일단 KIA는 화력으로 수비 약점을 지우고 1위를 지키고 있다. 날이 더워질수록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고, 타격 사이클도 있는 만큼 세밀한 수비가 KIA 1위 수성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사상 첫 '월간 10-10' 김도영 '월간 MVP'

KIA 타이거즈의 김도영(사진)이 처음 KBO 월간 MVP로 이름을 올렸다.

KBO는 9일 "김도영이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3-4월 월간 MVP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KBO 첫 '월간 10-10' 주인공인 김도영은 기자단 투표, 팬 투표에서 모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김도영은 기자단 투표 총 30표 중 23표(76.7%)를 얻었다. 또 팬 투표 결과 44만8880표 중 23만6767표(52.7%)를 차지하면서 총점 64.71점으로 1위가 됐다.

2위는 KBO 통산 최다 홈런 기록을 새로 쓴 SSG 최정이다. 최정은 총점 15.16점을 획득했다.

김도영은 개막 후 3-4월 31경기에서 나와 44개의 안타를 기록하면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10개의 공을 담장 밖으로 날리면서 홈런 공동 3

위, 장타율 2위(0.638)를 기록했다. 또 26타점과 29득점을 만들면서 각각 2위와 4위에 랭크됐다.

무엇보다 10개의 홈런과 함께 14개의 도루도 만들면서 KBO리그에 없던 '월간 10홈런-10도루'라는 기록을 만들었다.

4월 21일 광주 NC전에서 월간 10도루를 이룬 김도영은 25일 고척 키움 전에서는 4월 10번째 홈런을 날리면서 '월간 10-10'을 완성했다.

꾸준한 활약도 눈에 띄었다. 김도영은 4월 9일 광주 LG전에서 5타수 4안타를 기록한 이후 19경기 연속 안타로 4월을 마무리했다.

김도영의 연속 안타는 5월 1일 KT와의 경기까지 20경기 연속 이어졌다.

MVP에 등극한 김도영에게는 200만원의 상금과 함께 트로피가 주어진다. 또 신한은행의 후원으로 김도영의 모교인 광주 동성중에 200만원의 기부금도 전달된다.



한편 KIA의 월간 MVP 배출은 지난 2022년 7월 주인공이 됐던 이창진 이후 약 2년 만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고우석, 마이너 트리플A 첫 경기 호투

### 1.1이닝 무실점

오른손 볼펜 고우석(25)이 트레이드 후 처음 등판한 미국프로야구 마이너리그 트리플A 경기에서 인상적인 투구를 펼쳤다.

마이애미 말린스 산하 잭슨빌 점보수리프 소속인 고우석은 9일 열린 마이너리그 트리플A 오마하 스톰 체이저스(캔자스시티 로열스 산하)와 방문경기에서 1.1이닝 동안 피안타, 볼넷을 단 한 개도 내주지 않고 1탈삼진 무실점으로 들어막았다.

고우석은 4명의 타자를 상대로 컷패스트볼 7개, 직구 4개, 커브 2개 등 총 13개의 공을 던졌고 최고 구속은 150km(93.2마일)를 기록했다.

3-2로 앞선 6회말 2사에서 팀 두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오른 고우석은 상대 팀 지명타자 로건 포터를 공 1개로 잡았다.

초구로 바깥쪽 시속 142.7km 컷패스트볼을 던졌고, 포터는 중견수 뜬 공을 쳤다.

7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고우석은 세 명의 타자를 깔끔하게 처리했다.

선두 타자 데빈 만을 상대로 2볼-2스트라이크에서 높은 148.7km 직구를 던져 헛스윙을 끌어냈다.

이어 네이트 이턴은 초구로 느린 커브를 보여준 뒤 2구째 141.9km 컷패스트볼로 3루 땅볼을 유도했다.

마지막 타자 타이러 젠트리에게 볼 3개를 내리던 중이나 직구로 스트라이크를 잡은 뒤 몸쪽 컷패스트볼로 우익수 뜬 공 처리했다.

고우석은 올해 1월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2+1년, 최대 940만 달러에 계약했으나 시범경기에서 부진을 거듭하다 개막 엔트리에 승선하지 못하고 마이너리그 더블A로 밀려났다.

그러나 더블A에서도 2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4.38로 부진했고, 지난 5일 트레이드를 통해 마이애미로 이적한 뒤 곧바로 트리플A로 이동했다.

/연합뉴스

## LPGA 6연승 도전 코다 "연승 기록 생각 안할 것"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6개 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다(미국·사진)가 연승 기록을 머릿속에서 지우겠다고 다짐했다.

미국 뉴저지주 클리프턴의 어퍼 몽클레어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LPGA 투어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에 출전하는 코다는 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9일 기자회견에 나섰다.

코다는 "솔직하게 말하면, (연승 기록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코다는 최근 출전한 5개 대회에서 모조리 우승해 1978년 낸시 로페즈(미국), 2005년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에 이어 5연승의 대기록을 세웠다.

이번에 우승하면 LPGA 투어 연속 우승 신기록을 수립한다.

코다는 "그동안 너무 바빠서 연승 기록을 생각

할 겨를조차 없었다"고 털어냈다.

세브론 챔피언십 우승 이후 JM이글 LA 챔피언십에는 불참했지만, 고향인 플로리다주 브레이크턴에서 주니어 여자 골프 대회를 주최하고, 뉴욕에서 열린 갈라쇼에도 참가하는 등 분주한 일주일일 보였다.

코다는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도 훈련과 이번 대회가 열리는 어퍼 몽클레어 컨트리클럽에 더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코다는 작년 이 대회와 이어진 KPMG 여자PGA 챔피언십에서 내리 컷 탈락했다.

두 대회 모두 뉴저지주에서 열린다.

코다는 "뉴저지에서 그리 좋지 않았다. 올해는 한 번에 한 번씩만 해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려고 한다"고 작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냈다.

"매우 좁고 러프가 매우 까다로운데 올해는 습



기가 많아서 더 어렵다"고 코스를 평가한 코다는 "너무 앞서가지 말고 한 번에 한 샷씩 치는 게 중요하다. 뻔한 얘기지만 이 방식을 고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다는 디펜딩 챔피언 고진영, 그리고 이민지와 함께 1, 2라운드를 치른다. /연합뉴스